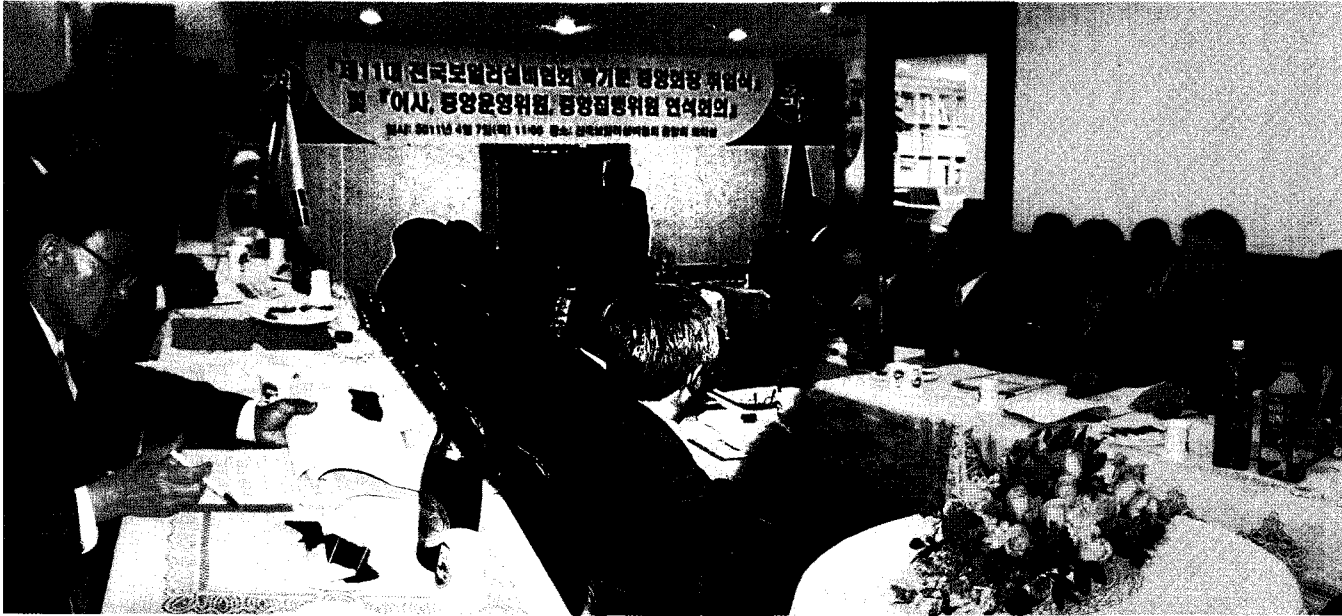


제11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중앙회장 취임식 및 이사,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 제11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중앙회 박기준 중앙회장

전국 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박기준) 2011년 04월 07일(목) 11:00 중앙회 회의실에서 제11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중앙회장 취임식 및 이사,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날 제11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은 취임 및 개회사에서 취임하게 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협회를 위하여 봉사한 것이 회원님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어떠한 때보다도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자면

서, 회원들이 믿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중앙회장직에 소임을 충실하게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취임한다고 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협회발전에 그 동안 애써주셨던 역임 중앙회 임원님과 지역에 대표 및 임원님들께도 노고에 감사한다고 한 후 협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7일(목) 11:00 장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중앙회 회의실



▲ 좌측부터 중앙회 변경식 부회장, 박기준 중앙회장, 문쾌출 부회장, 백성해 부회장, 이강신 부회장이 케익커팅을 하고 있다.

박기준은 중앙회장에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역점을 두고자 한다면서

첫째,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협회의 지향하는 사업과 목적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협회의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둘째, 지역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회원을 확대할 정책에 대하여 강구하겠다.

셋째, 소비자와 회원사의 업역을 위해 불법시공에 대한 근절 방법을 강구하여 실시하겠다.

넷째, 협회가 장래를 보고 현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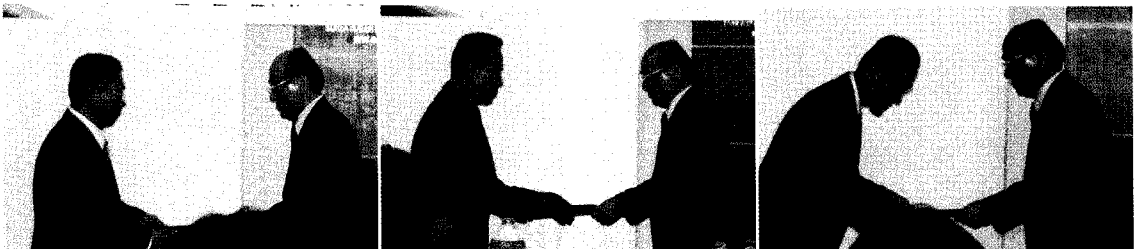
에서 미비되거나 부족한 각종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

다섯째, 협회를 대외적인 홍보강화와 대내적인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박기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식을 지부·지회 임원들의 박수 속에서 부회장들이 도와 이루어졌으며, 문쾌출 부회장이 축하건배제의를 함으로써 협회의 영원한 발전을 다짐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① 2011년도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04월 01일 ~ 06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교육장소와 일정을 안내하고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② 가스보일러 오인연결 방지 개선방안으로 개선 될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기준 개정(안) 가스접속배관과 급수접속배관의 오인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급수”등을 양각 또는 음각글자로 표시하고 가스배관에는 황색마개 및 식별Tag를 설치하도록 KGS Code개정 될 것을 설명하고, 연소기 전용 급수후레스블 호스사용 의무화(11.01.01시행)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지부지회 월례회의시 이 내용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③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기간(04.01-06.30)이 안내, ④ 온수온돌기능사 교육안내 및 접수 등을 보고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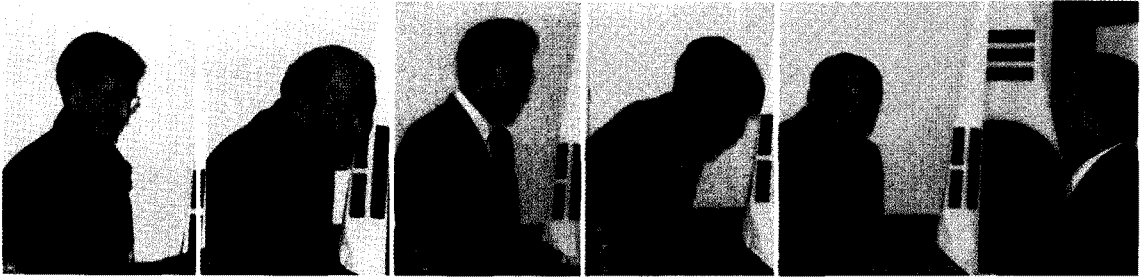


▲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진근(중로 중구지회장)

▲ 중앙윤리위원회부위원장 서창호(대구·경북지부장)

▲ 중앙업무처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평준(부산·경남 지부 전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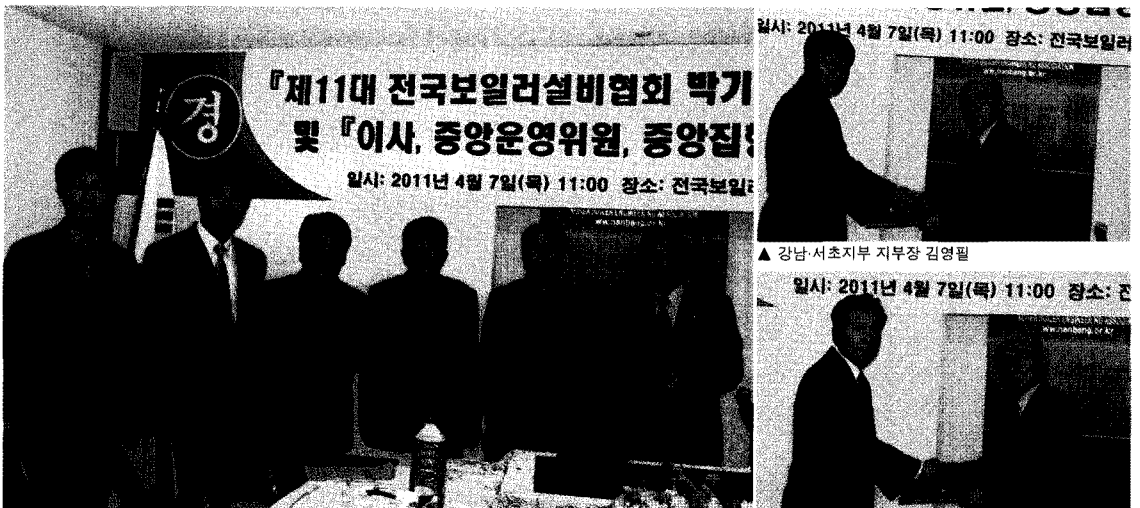
♣ 중앙윤리위원 5명



▲ 김길래(마포·서대문지부장) ▲ 임종덕(광주·전남지부장) ▲ 천종구(성남지부장) ▲ 서대호(천안지회장) ▲ 권봉갑(인천지부장)

『중요의안』로는 ① “업무처리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② 중앙회 임원 구성의 이강신(서울 양천), 최병희(전북), 임승복(충남) 3명이 중앙회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되었으며,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김진근(종로·중구지회장)을, 부위원장 서창호(대구·경북지부장)을 중앙회장이 위촉하였으며, 중앙윤리위원으로는 김길래(마포·서대문지부장), 임종덕(광주·전남지부장), 천종구(성남지부장), 서대호(천안지회장), 권봉갑(인천지부장) 5명을 윤리위원장이 각각 위촉하였다. 또 중앙업무처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권평준(부산·경남지부 전지부장)을 협회장이 위촉하였다. ③ ‘2011년도 “전국사공인 에너지절약 및 재해예방 실천결의의 단합대회”를 2011.05.25(수)10:00~19:00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두류공원운동장야구장에서 있음을 알리고 경기종목, 경기운영규정, 팀구성, 사업조직도 등 세부사항들을 정하였다. 또 ④ 서울직할 지부 신설을 승인하였다.

⑤ 기타사항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신규 지부·지회장에게 강남·서초지부 지부장 김영필, 성남지부 지부장 천종구, 양천지부 지부장 김부길, 이천지회 지회장 조순창,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전명주, 전북지부 지부장 박주운, 제천지회 지회장 손동만, 안산지부 지부장 채희팔, 장호원(갑곶)지회 지회장 최경순 9명을 각각 지부지회장으로 승인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⑥ 차량 및 협회로고 보급과 회원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지부·지회 전용팩스 운영, 대표전화1588-6868의 지역배정을 해지, 국가기술자격증과 관련된 지원교육안내, 국가재난·재해 복구봉사대 발족과 관련하여 합의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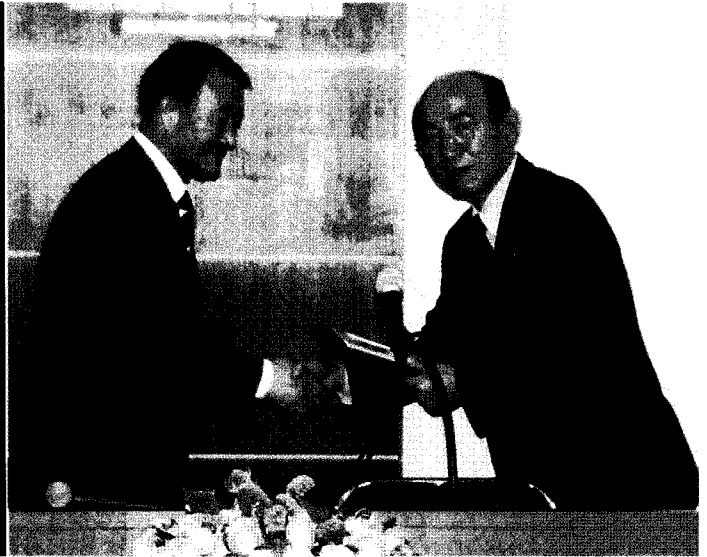


▲ 신규 지부·지회장

▲ 성남지부 지부장 천종구

중앙회

최명희 강릉시장,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전달



전국 보일러설비협회(회장 박기준)는 2011년도 강원도에 100년만에 130Cm라는 경이적인 폭설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농민의 아픔을 도와주고자 협회차원에서 폭설피해 복구단을 구성하여 봉사활동을 02월 23일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02월 25일 대의원총회 이후부터 3월에 걸쳐 수차에 실시하였다. 이에 강릉시 최명희 시장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서 시민대표로서 우리 협회 회원님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전달은 강릉시청 경제진흥국 권혁문 국장과 농정과 전인순 과장이 해 주었다.



양천지부

김부길 지부장 취임식 및 사무실이전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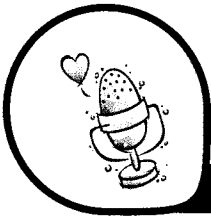


양천 지부(김부길 지부장)는 지난 4월 5일 신월동 소재에서 박기준 중앙회장, 문쾌출 부회장, 김상욱 감사, 김길래 서대문마포지부장, 이장호 은평지회장, 홍성열 강서동부지회장 그리고 소방안전방재협회 및 의용소방대 임원과 지부임원, 회원사와 협력업체등에서 참석하여 취임식 및 사무실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김부길 지부장은 취임사에서 “겨울옷을 모두 정리하여 넣었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부니 봄옷을 입고 나온 오늘은 무척 난감하다며 양천지부가 거듭 나가위한 현판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들과 회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소임을 다 하기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위상은 회원 스스로 위상을 높여 나가자고” 하였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겨울의 묵은 때가 벗겨지 듯 말랐던 나뭇가지에 하나 둘 연두색 작은 잎들이 돋아나는 모양이 무척이나 신기한 4월에 양천지부 이전현판식을 축하하며 그 동안 침체되어온 양천지부가 신임지부장의 확고한 리더쉽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양천지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부길 지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의용소방대 목동지대장을 역임하면서 그 활동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은바있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자부심으로 설비업을 가업으로!

INTERVIEW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중앙회 이강신 부회장

이강신(송암설비) 신임중앙회 부회장은 양천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시골(고창)이 고향인 사람은 그때는 그렇듯이 무작정 상경하였는데 처음에 연탄보일러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이 직업이 되었다고 하였다.

“참 그때는 먹고살기 힘든 시기여서 기술이 최고였던 때라 기술 하나 배우려고 밤 낮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배웠다”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모 건설회사 사내작업 훈련소를 수료하고 기능공으로 30년 동안 근무 한 후 그때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설비인들의 비전은 시공인들의 생각이 달라져야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하여튼 변해야 된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시공만하면 제조사나 대리점에 A/S를 맡겼는데 어렵게 관계되어진

고객을 스티커 한 장으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사후 고객관리를 해야 된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설비업을 가업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요즈음 젊은이들이 취직이 힘든 시기에 자녀들에게 업을 전수 해주고 젊은 기능이 양성되어서 일자리창출과 어렵게 배운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조화를 통해서 업이 창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취득을 통해서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설비인이 되자”고 하였다.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있고 협회는 회원들의 작은 소리라도 귀기 울려(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야 힘 있는 협회가 육성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준법정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회원들도 조금 짜증 나더라도 제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생활 하자고 하였다.

취미는 하루 하루 힘들게 일하다 보면 때로는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는 지인들과 함께 산행도 하고 바다낚시로 훌쩍 떠납니다.

좌우명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다는군요 회원여러분 나없으면 세상은 없답니다.

지금도 협회지를 시간 날 때 마다 유익하게 정독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기술과 개정법령 등을 신속하게 게재 부탁드리며 건강 상식과 민간요법 그리고 가볼만한 여행지와 산, 바다를 취재하여 간접여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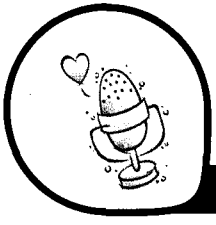
▲ 중앙회 이강신 부회장

성남지부

사랑의 연탄보일러 교체봉사활동실시

성남 지부(천종구 지부장)는 4월8일 수정구 고등동에서 사랑의 연탄보일러 교체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천종구 지부장은 고등동소재 사랑의 연탄보일러 교체봉사활동이 2년 전에 봉사활동을 하였던 지역인데 보일러가 낡아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요청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계획 되었다.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 강화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INTERVIEW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성남지부 천종구 지부장

천종구 성남지부장은 전공이 배관용접인관계로 84년부터 건축업을 시작하여 업을 영위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설비업에도 인연을 맺게 되었다며 현장에서 다방면의 사람들과 경험의 축적이 설비업(강원설비)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고향이 논산인데 상호가 강원설비라서 처음에는 고향이 강원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자와 같이하다가 인수하게 되면서 강원설비가 되었다”고 하였다.

협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를 묻자 “거래하는 자재상의 권유와 IMF 때 건설업의 침체로 설비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보일러설비협회에 가입하여 주위의 선후배와 교감도 같이하고 업을 하는데 상부상조와 상호정보교환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협회의 가입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설비인의 비전을 말해 달라고 하니 이런 말을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설비인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보일러시공을 대리점에서 다해 먹는다고 투덜대지 말고 보일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끼리 사심 없는 정보교환과 건축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변화하는 관련 업계의 발전에 다함께 적응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다.

“회원들의 단합과 지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애경사에 서로 위로해주고 축하 해주는 친목 도모와 내가 가진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정보를 교환하고 일을 할 때도 상부상조하는 미덕 즉 옛날 품앗이가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되고 관련 단체와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성남지부는 분기별로 야외에서 단합대회를 가지고 필요시 회원들에게 관련업체의 신기술교육이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천지부장은 “건축업을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천종구 지부장은 전국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회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신, 항상 역지사지(상대방의 입장에서생각)의 자세를 갖자고” 하였다.



▲ 성남지부 천종구 지부장

충남지부

에너지절약실천캠페인 및 국토환경청결운동 실시



충남 지부(최종술 지부장)은 4월5일 금산군 금산읍에서 지부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하여서 에너지절약실천 캠페인 및 국토환경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최종술 지부장은 뒷동산처럼 포근하고 아내의 얼굴처럼 아름다운 산들로 이루어진 청정자원이 살아 숨 쉬는 금산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에너지절약 실천캠페인을 벌였고 세계의 모든 영약이 집중되어 있는 이 곳 금산은 찾는 이로 하여금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관광도 하며 다양한 쇼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에서 국토환경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김용신 금산지회장은 우리 고장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이라는 구호와 함께 찾는 이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금산"이 되도록 지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산자락에서 자란 1500여년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영약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시장을 자랑하는 고장을 설비인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건강하시라고 하였다.

오늘참석 한 회원은 나눔은 행복투자이며 혼자서는 이룰 수 없지만 여러 마음들이 모이고 사랑을 나누는 정이 살아 있는 우리 금산은, 어려운 이웃들의 시린 가슴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는 아름다운 고장이 될 것이라 하였다.



대구지부

연탄보일러 설치 및 배관교체 작업



대구 경북지부(서창호 지부장)는 지난 3월31일 지부회원(20여명)들과 함께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소재 사랑의집 비인가 요양시설(김성곤 원장)에 연탄보일러 설치 및 배관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서창호 지부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며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부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희망발전소’ 이고 늘 사랑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원봉사는 우리 생활 속 필수적인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며, 글로벌시대의 선진문화를 이끌어가는 꽃이라고 여겨지며 이렇듯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한 걸음만 다가와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전국의 우리 회원들도 동참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김부길 양천지부장, 가스신문<제1012호>게재되었다.

“조직적인 봉사위해 지부장됐어요”

보일러설비協과 인연으로 설비시작, 특기별로 편성한 ‘봉사드림팀’ 구성

지난 3월 1일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양천지부장으로 양천구 운영위원인 김부길(48)씨가 지부장으로 선임되고 4월 5일에는 양천지부 현판식을 했다.

40대가 지부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일러설비협회로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부길 지부장을 만나 봤다.

고등학교 때까지 김 지부장은 잘 나가는 씨름선수였다. 경남 김해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씨름실력이 좋았다. 그러던 그가 설비업계에 들어서게 된 것은 10년 전 보일러설비협회와의 인연 때문이다.

“대학 전공이 기계공학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그와 관련해 건축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1997년 IMF때 건축업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꿈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와 거래처 관계에 있던 자재상 사장(당시 보일러설비협회 양천지부장)이 가스보일러 사업이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일손이 딸리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보일러설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부장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정작 생업에 속하는 설비일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40대는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하는 시기다. 왜 지부장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업은 보일러설비와 주택 인테리어이지만 봉사일을 좋아해 소방대원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 의용소방대 목동지대장입니다. 보일러설비협회 지부장이 되면 지부일을 하느라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부장의 힘이라면 봉사활동도 어느 수준은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 지부장이 됐다고 하니 남다른 각오가 있을 듯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법하다. 김 지부장은 이에 대해 일종의 드림팀 구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이던 봉사활동이든 서로 손발이 맞는 사람이 함께 일하면 진행속도가 빠르고 품품해지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설비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각 특유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누수를 잘 막고, 누구는 미장일을 잘하고, 누구는 보일러 설치를 잘합니다. 그러한 특기들을 서로 교차 편성해 조를 짜 봉사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림팀을 그대로 이어가 품앗이, 두레처럼 서로 일을 해 주어 능률과 작업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간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협회 지부가 그 중심에 서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니다.”

김 지부장이 처음 설비 일을 할 때와 지금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일은 어렵고, 돈 벌어도 적은 업종이 되어 버렸다.

“10년 전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수입이 절반 이하라고 봐야 합니다. 회원 중엔 한 달 수입이 5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제대로 된 기능이 더욱 절실합니다. 협회는 보일러 설비만으로는 힘든 만큼 이를 확장해 인테리어업을 같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원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각오입니다.”